새해 오복의 대항마

(요5:30~47)

30.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31.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32.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33.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34.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35.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36.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37.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1.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새해 오복의 대항마>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대항마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뜻을 한 번 새겨봅니다.

경마에서 우승이 예상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우승이 예상되는 말에 사람들이 돈을 걸기도 하고 하는데, 우승이 예상되는 말과 결승을 놓고 백중세의 경주를 벌일 수 있는 말을 하나 등장시키게 됩니다.
이때 이 말을 우리가 대항마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역사 이래 처음으로 여자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는 여자대통령이라는 것을 의식해서 여자대통령에 대항할 수 있는 여자 정치인을 물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대항마라는 말을 쓸 수 있지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애플이 먼저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면서 기선을 제압하고 돌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애플이 스마트폰 영역에서 독주를 하는가 했더니 삼성이라는 대항마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판세가 어떻게 되는가 보았더니 이제는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삼성이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삼성이 스마트폰 휴대폰 TV 분야에서 독주가 예상됩니다.
기껏 삼성전자의 대항마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나라의 LG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참 대단하지요?
전자 영역에서 이제는 대항마가 없어요, Sony를 비롯한 일본을 다 제쳐버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되어온 경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의 마음 빼앗기 경주입니다.
이 인간의 마음 뺏기 경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내 입에서 '~ ~ 하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오게끔 하는 것이 경주의 우승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그러면, 돈이 내 마음 뺏기에서 우승을 한 겁니다.
그 경주가 시시각각 달라지면서, 지금은 '아, 내가 멋진 외제차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외제차가 내 마음을 뺏은 겁니다.
'내 자식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내 마음을 뺏은 겁니다.
내 마음 뺏기 경주는 언제나 ' ~ ~ 하면 좋겠다'에서 우승자가 가려집니다.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해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강릉이 1월 1일이 될 때마다 난리입니다.

강릉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정동진이 있지 않습니까?
해맞이 아침을 보내느라고, 새해 첫 번째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이건 뭐 태양신 라를 섬기는 이집트도 아니고, 이상한 미신이 온 나라에 뒤덮여서 80만 명이 동해안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소원, 마음을 빻는 거예요.
'새해에 ~ ~ 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데 그 소원 통틀어서 크게 보면 대부분 5복의 경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5복이 뭡니까?
오래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그리고 출세하는 것, 이게 바로 수(壽), 부(富), 귀(貴) 아니겠어요?
그리고 본래 5복이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는 중국의 고서 서경과는 다르게 민간에서는 나머지 두 복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면, 건강한 것과 자손이 잘되는 것입니다.
야~ 이거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다 있겠어요?
응천상지삼광 비인간지오복 (應天上之三光 備人間之五福)
하늘에는 세 개의 빛, 태양과 달과 별이 있는데 그것에 상응해서 인간 세상에는 5복이 있다.
그러니까 오복이라는 게 돈 벌고, 벼슬하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자손이 잘되는 이것은 빛 덩어리 같은 거예요, 마음의 보석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고 좋으면 마음에 보석처럼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1월 1일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소원을 빌 때, ' ~ ~ 이루어지면 좋겠다' 마음 빻기 경주에서 누가 내 마음을 빼앗은 1등인가가 다 드러났던 건데, 그 1등들을 다 모아놓으면 오복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오복이 독주하는 이 인간 세상에 예수님이라는 한 인간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5복 중에 어느 한 복이라도 모든 인간의 마음을 다 1등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 한 분에게서만은 이 오복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고 계시는 인간이셨는데,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영원한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아버지께 마음을 다 빻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 ~ ~ 하면 좋겠는데…' 하면서 마음 빻기 경주에서 누가 1등 했는가를 드러내고 오복 안에 있는 것들을 다 1등으로 발표하고 있을 때, 예수님 혼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더 많이 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더 또렷하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러시면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고, 지금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라는 얘깁니다.
그리고는 돈 벌면 좋겠다고 외치는 사람 앞에 오셔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식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하며 마음 뺏기 경주에서 자식이 1등이라고 발표하는 사람에게, 내게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 뺏기 경주에서 건강이 1등 했다고 발표하는 사람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그 자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과 듣고 보면서 통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서라는 얘깁니다.
그 자리에 서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을 빼기 경주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이 뺏겨지는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 마음이 뺏겨진다는 것, 이건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복의 대항마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끌어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오신 것입니다.

오복의 대항마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오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업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 ~ 되었으면 좋겠다’를 다 열거하면서 ‘하나님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할 테니까 이 모든 ~ ~ 하면 좋겠다의 조건들을 다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복을 습득하는 방편과 조력자로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오복의 대항마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서 오복을 제거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 마음을 완전히 오복으로부터 탈취해서 당신이 갖고 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은 우리 마음에서 오복에 대한 좋아함이 발본색원되는 겁니다.
완전히 뿌리째 뽑혀지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걸 아시고 믿으셔야 돼요.
'오복을 얻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마음, 내 마음이 오복에 가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이 오복 습득의 조력자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고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할 때 이건 무당과 같아요, 굿하는 거예요.
오복에 해당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삶에 펼쳐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오복을 향한다는 것은 오복을 기대하게 한다는 것은 오복을 바라게 한다는 것은 무당과 같다는 것이에요.
예배가 아니라 굿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복의 대항마로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오복에 대한 바람과 기대를 깡그리 뿌리째 뽑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복 습득의 조력자가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을 믿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가 전부 그겁니다, '나를 증언한다, 나를 증언한다…'는 증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라이브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언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라이브로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이 땅에서 연결되어 계셨는데, 주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 바로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의 고백은 어떻게 되느냐?
그 동안은 돈 많이 벌면 좋겠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마음에 가까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배부르게 마음에 모셔 들이면 좋겠다, 하나님을 더 똑똑하게 보면 좋겠다, 하나님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복을 향하여 ~ ~ 됐으면 좋겠다, ~ ~ 됐으면 좋겠다던 것들이 전부 하나님으로 대체되어버립니다.
대항마로 오신 거예요.
내 자식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식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에 대해서 대항마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힘을 실어드렸을 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삭은 이삭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해해서 이삭이 잘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이삭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식이 잘되기를 바란다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바랄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마음에서 내 인생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지금 보고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귐이 더 깊어지면 좋겠는데…
오직 우리의 일생은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이 바람만을 갖고 산다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 세상을 향한 모든 소원이 다 하나님으로 대체되는, 대항마로 오신 하나님께 힘을 실어드리는 바른 참 믿음의 모습이 새해를 관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게 뭔지 아시죠?
예수님을 붙잡으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가십니다, 십자가로 가셨다가 죽으십니다, 세상을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길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드신 겁니다.
주님은 그런 과정이 없어도 하나님과 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살아있으면서 라이브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죽으시면서 이 세상을 빠져나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우리가 그대로 가면 되는 연결통로를 만드신 것이지요.
이 연결통로는 과정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1초도 안 걸려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고 그 길이 뚫려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업장에 가면 어쩔 수 없이 보고 듣는 게 사업현황이기 때문에 '아, 이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떠올리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내가 바로 저렇게 죽었다는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사업장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사업장 이쪽의 십자가 뒤쪽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행복이 주어집니다,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서 헤벌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율동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유아부 지도 선생님이 율동을 하듯이 율동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웃으면서 마음에는 평강과 행복이 가득한 채로 그저, 하나님께서 오른팔 내밀면 나도 내밀고 하나님께서 뛰면 나도 뛰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면 나도 그 말을 듣고 따라하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십시다.
주님의 자리에 서는 것은 라이브 연결을 위해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 빼앗기기 위해,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기 위해 주님의 자리에 서는 겁

니다.
오복을 향한 마음의 빼앗김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오복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모든 소원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내 마음을 빼앗으십니다.
당신을 보이시고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면서,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새해에는 오복의 대항마로 오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하여 그 대항마이신 하나님께 힘을 실어드림으로써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가실 수 있게, 내 마음 뺏기 경주에서 하나님이 1등 하실 수 있게 믿음을 보여드리고, 내 마음을 빼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실 때 행복해 하시며, 행복해하는 마음 앞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 움직임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아름다운 2013년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복 습득의 조력자가 아닙니다.
오복의 대항마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이 대항마로 오신 하나님에게 힘을 실어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 뺏기 경주에서 1등 하옵소서.
이 여망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기억하며 표현합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한 나의 모든 소원이 죽으므로, 하나님과 내 마음이 라이브로 연결되는 기적 중의 기적이 날마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2013년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